

# 중 생(重生)

요한복음 3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이 명 직 목사

이명직 (1896. 12. 2~1973. 3. 30)  
목사님은 한국성결교회 사부님으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본 란을 통하여 그때 그 말씀을 다시 들어본다.

### 1. 중생이 무엇이뇨

중 생(重生)이라 함은, 그 뜻이 '다시 난다' '두번 난다' '새로 난다' '새로 짓는다' '거듭 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중생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에(요 3 : 3), 종교가요 도덕가라는 니고데모는 이를 깨닫지 못하였고 도리어 반문하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번째 모태(母胎)에 들어 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요 3 : 4) 하였다. 중생은 중생한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혹 그렇게 하여 안다고 하여도 자신은 넘어

질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영의 만족은 없을 것이다. 중생의 극치를 비유하여 말하자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지내다가 3일만에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은 1 : 17, 2 : 2-10) 광명한 해와 달을 보게 되고 새 생명을 가지게 된 것과 같다 하겠다. 또한 더러운 흙 가운데 묻혀있던 곤충이 나비로 변하여 공중을 펄펄 날아다니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육체의 정욕만 위해 살았던 옛 상태를 벗고 영성(靈性)으로 살게 되는 새로운 상태가 곧 중생이다.

중생치 못한 사람의 심령은 물질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영에 대한 지식은 없으며, 죄는 행할 수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사랑한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어, 행동, 행위와 가정을 보면 중생의 유무(有無)를 알 수 있다

## 2. 중생치 못한 심령

중생치 못한 사람의 심령은 물질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영에 대한 지식은 없으며, 죄는 행할 수 있으나 선을 행할 능력은 없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진리를 미워하고 불의를 사랑한다. 비록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언어, 행동, 행위와 가정을 보면 중생의 유무(有無)를 알 수 있다. 물론 중생치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찬송도, 기도도, 전도도 할 수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을 수 있었다.

그 중생치 못한 상태를 말로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례를 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 오만불손하여 자기만 홀로 잘난 척 하며 남에게 먼저 인사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먼저 인사를 받고자 한다. 또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으며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의심하며 사람들 앞에서는 제법 점잖은

척하지만 혼자 있을 때와 가정에서는 합부로 행동한다. 그리고 사치하여 값 비싼 의복입기를 좋아하며 머리와 얼굴을 꾸미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 쓰며 그 입엔 음담, 농담, 비평, 거짓 말이 있고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빛이 없고 또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항심이 일어난다. 이것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심령 속에 새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중생치 못한 삶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다.

## 3. 중생의 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5) 하셨다. 우리에게 있어 중생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생은 교인되는데, 교역자되는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뵈옵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다. 중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중생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것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순간적인 변화이다. 중생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중생의 경험이 있었는 지를 확인해보고(즉 영혼의 상태를 조용히 살펴보고), 성령의 빛에 비추어 주님과 양심에 들어보아야 한다

생치 못한 사람은 여인이 난 자 중에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천국갈 수 없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이요, 둘째 아담되신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천국은 영이 죽은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 아담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창 1:26-27), 범죄후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그 영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손된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엡 2:1). 그러나 사람은 중생함으로 그 영혼이 죄에서 다시 살아나고 창조되었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현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명확히 중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

#### 4. 중생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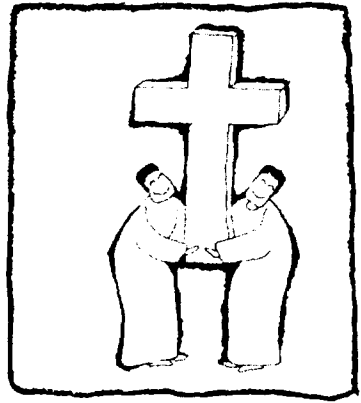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중생을 아주 평범하게

생각한다. 예배당에 열심히 출석하고 술이나 담배를 끊으면 중생한 줄로 안다. 아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건전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중생은 그러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중생은 영혼의 문제이며 구속의 문제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중생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도 간단한 것으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순간적인 변화이다. 중생의 방법을 간단하게 말하면, 먼저 마음과 생각을 돌이켜 중생의 경험이 있었는 지를 확인해보고(즉 영혼의 상태를 조용히 살펴보고), 성령의 빛에 비추어 주님과 양심에 들어보아야 한다. 주님과 성령과 양심은 보호함이 없이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써 자기의 심령상태를 깨닫게 된다. 즉 자기의 영혼의 안과 밖에도 사리고 있는 죄악을 알게 되고, 눈과 손과 발의 깨끗치

못함을 깨닫게 되고, 모든 일에 의심, 위선, 가면을 쓰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자연스럽게 심령의 고통이 일어나게 된다. 심령의 고통이 일어날 때 덮어두거나 스스로 위로하거나 기도로 그치지 말고, 주님 앞에 그 죄악을 다 회개하여야 한다. 성령을 힘입어 회개하면 자신의 죄가 다 그리스도에게 담당되어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와같이 회개한다고 중생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는 믿어야 한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곧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임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죄악을 통회하는 눈물이 감사의 눈물로 변화되는 감격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후에야 비로써 심령이 밝아지는데 그 까닭은, 심령을 더럽히고 속박하고 있던 죄악이 회개 자복함과 동시에 모두 십자가로 옮겨지고 본래의 형상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태양을 가리우고 있던 검은 구름이 바람에 걷히고 맑고 밝은 하늘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 이것이 곧 중생인데, 이후로부터 비로써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며 묵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



다.

### 5. 중생과 무형의 변화

중생을 분석해보면 세 가지 변화가 있다.

첫째는 사죄(赦罪-죄사함 받음)의 변화이다.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불안하고 장차받을 형벌을 두려워하며 지내게 된다. 그러므로 사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다(엡 2:3). 그러나 확실히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신앙하면은 사죄함을 받는다(행 2:37). 이것이 곧 은혜의 풍성함이다(엡 1:7). 이 변화는 마치 죄수가 철창 속에서 푸른 옷을 입고 부자유한 감방생활을 하다가 특사로 석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는 것과 같다.

중생치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엡 2 : 1)이다. 육체와 정신과 호흡의 기능은 있으나 영적 생명은 없는 자이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 올 때에 비로서 새생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요 6 : 47)이다

둘째는 처지의 변화이다. 회개하기 전의 처지는 불의한 자이다. 제 아무리 도덕군자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처지에 있는 자이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느니라” (롬 3 : 10) 한 말씀과 같이 온 세계인류는 모두 불의한 사람들이다. 아무리 불의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불의와 죄악을 깨닫고 회개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롬 3 : 24)가 된다. 이것이 처지의 변화이다. 우리가 불의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기다릴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어 의로우신자로 불의한 자를 대신 하여 (벧전 2 : 18)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다. 불의한 우리는 의로우신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즉 “그리스도를 옷 입듯할 때” (갈 3 : 27)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되 죄를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으로 인

정하신다. 그러므로 이 의는 우리가 율법을 혹은 도덕을 행함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이다.

셋째, 가족적인 변화이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신앙할 때에 “마귀의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1 : 12)가 되어” “하나님의 권속” (엡 2 : 19)이 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될 때 비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롬 8 : 15) 부르게 되며, 또한 확실한 것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롬 8 : 16) 하시기 때문이다.

## 6. 중생과 새 생명

중생치 못한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엡 2 : 1)이다. 육체와 정신과 호흡의 기능은 있으나 영적 생명은 없는 자이다. 그러나 사람이 회개함으로 죄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 올 때에 비로서 새생명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영생’(요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 기도 중에 주로 더불어 교제하며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에 승리하게 되며 신앙이 날로 날로 향상하게 된다

6:47)이다. 이 새 생명인 영생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 하고, 마지막 날에 부활하여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다. 영생은 다름이 아니라 현재에 중생하여 생기는 새 생명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생의 기원은 중생이다.

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기도의 열정이 일어나 기도 중에 주로 더불어 교제하며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리하여 전에 승리하지 못했던 것에 승리하게 되며 신앙이 날로 날로 향상하게 된다. 참으로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는 죄를 범치 않게 되나니(요일 3:9), 이것이 새 생명의 능력이다. 또한 세상을 이기게 된다(요일 5:1-5). 이 새 생명이 있는 자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또한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능

력이 있어서, 씨앗을 밭에 뿌리면 그 연약한 싹이 굳은 흙을 뚫고 새싹이 돌아나오는 것과 같은 힘이 있다. 이와같이 새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종의 항력(抗力)이 있다. 결코 병적 상태(病的狀態)나 수면상태(睡眠狀態)에 있지 않고 활발한 능력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방법, 전문, 말 재간, 학식에 따라 설교는 그럴 듯 하게 잘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영력있는 간증은 없다. 그러나 새 생명이 있는 사람은 설교는 그리 잘하지 못하여도 그의 간증은 능력이 있고 활발하여 산과 바다라도 뒤엎을 듯한 열기가 있다. 이 사실이야 누가 감히 아니라 하라. 새 생명은 위선, 외식, 형식을 떠나 실제로, 진리로, 성결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나 중생이 절정의 은혜도 절정의 구속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결'로 나아가야 한다. 42

<본고는, 이명직 목사의 설교집 제1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균목사가 현대적 표현으로 옮긴 것이다 편집자 주>